

정조대 군신(君臣)의 비밀편지 교환과 기밀의 정치운영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ahnhoi@naver.com

- I. 머리말
- II. 군신의 비밀편지 교환과 기밀의 유지
- III. 비밀편지와 기밀의 내용
- IV. 맺음말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6일에 '세계사 속의 왕실문화를 다시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국제학술대회에서 '궁정과 외부세계'의 개별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I. 머리말

조선의 제22대 국왕 정조(재위: 1776-1800)가 보낸 어찰(御札)은 궁궐 밖의 친척이나 신하들에게 쓴 편지이다. 실물이 남아있는 어찰의 수량은 대략 3,000통을 넘는다. 국내외에서 정조를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쓴 국왕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아무리 많은 편지를 남긴 국왕이라 해도 수십 통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하고도 예외적이다. 더욱이 남아있는 편지는 실제 쓴 것의 일부에 불과하고 계속 발굴되는 중이므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사료로 평가되는 정조 어찰 가운데 신료와 주고받은 편지 대부분은 기밀문서였다. 당시에는 엄중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 특급 기밀문서였으나 왕조가 몰락하고 200년이 지나서 기밀이 해제되었다. 정조는 궁궐에 머물러 만기(萬機)를 친람(親覽)하면서 궁궐 밖 도성에 머물거나 아예 먼 지방에 있어서 소환하기 힘든 고위관료와 밀찰(密札)을 주고받으며 국정 현안을 직접 상의하고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 고위관료 역시 밀찰을 통해 지시를 받거나 국왕에게 기밀을 은밀하게 전달하여 정보와 판단을 알려야 했다. 비밀편지는 단순한 소식과 안부의 교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긴밀한 국정 운영의 비상시적 비제도적 장치였다.

밀찰을 활용한 국정 운영은 예상을 넘는 파격적이고 특이한 방법이다. 하지만 궁궐 밖 신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은밀하게 지시한 비밀편지 교환은 강력한 왕권의 실현에는 큰 도움을 주었으나 국왕 스스로가 정상적 정치운영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 밀찰은 법적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노련하게 대신과 정파를 통제하고 관리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비정상적 국정운영과 과도한 비밀주의에 의존한 혐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궁궐 밖에 있는 고위관료와 비밀편지를 통해 국정을 논하는 형식이 형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을 검토한 뒤에 두 가지 주제의 주요 안건을 다양한 사료와 함께 분석하여 정조대 군신의 밀찰 교환이 정치운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박종악(朴宗岳, 1735-1795)이 1791년-1795년 사이에 정조에게 보낸 밀찰 묶음과 정조가 1796년-1800년 사이에 심환지(沈煥之, 1730-1802)에게 보낸 밀찰 묶음이다. 박종악의 편지에는 정조의 편지가, 정조의

편지에는 심환지의 편지가 있어야 편지왕래의 실상이 완벽하게 재구될 수 있으나 당시의 풍부한 사료를 활용하면 한쪽 편지만으로도 왕래의 실상을 상당한 정도로 재구할 수 있다.

II. 군신의 비밀편지 교환과 기밀의 유지

1. 정조 치세의 비밀편지 애용과 수량

밀찰의 운영은 전적으로 국왕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정조의 밀찰 애용은 매우 특별한 사례이다. 정조 어찰은 친인척에게 보낸 것과 신하에게 보낸 것으로 크게 나뉜다. 친인척에게 보낸 어찰은 안부를 주고받은 내용이 뼈대를 이루므로 정치운영의 사료로서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가장 많은 수량은 풍산홍씨 외가에 보낸 어찰이다. 외조부 홍봉한(洪鳳漢)을 비롯하여 여러 외숙과 외사촌, 외숙모 등에게 보냈다. 그 어찰은 1806년 온 집안에서 협력하여 간찰첩의 형태로 완벽하게 정리하였고, 모두 58첩 2,094쪽의 수량으로 화려한 장정에 정밀하게 제작되었다. 어찰 정리사업은 혜경궁 홍씨가 영조와 사도세자, 정조가 친정 집안에 보낸 편지와 시문, 글씨를 총괄하여 정리하도록 엄중한 언교(諺敎)를 내려서 이루어졌다.¹⁾

그밖에도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 1770-1822) 집안에 보낸 64통과 1781년을 전후한 시기에 후궁인 화빈윤씨(和嬪尹氏, 1765-1824)의 부친 윤창윤(尹昌胤, 1734-1798)에게 보낸 어찰 수십 통이 전해오고²⁾, 종친이나 인척에 보낸 편지도 다수 확인되었다. 정치적 안전보다는 안부를 묻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지만 홍봉한에게 준 어찰처럼 정치적 성격의 편지도 적지 않다.

정치적 성격의 어찰은 신하에게 보낸 비밀편지이다. 혜경궁 홍씨가

1) 1806년의 어찰 정리 작업 전반은 안대회, 「정조가 보낸 어찰의 현황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 어찰」, 『정조어찰』(국립고궁박물관, 2011), 179-182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2) 전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64통의 『정조어찰』이다. 도록에 실린 장유승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 어찰의 수신자 고증」과 안대회, 「정조가 보낸 어찰의 현황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 어찰」, 김문식의 「정조 어찰에 나타나는 서적들」에 자세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후자는 같은 곳에 소장된 『정조어필첩』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선왕께서는 문장을 좋아하셔서 평소에 조정 신하들에게 하사한 편지가 대단히 많았다. 이제 와서는 떨어진 진주나 버려진 백옥처럼 되어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 그것들이 오래 지나면 사라져버릴까 나는 두렵다.”³⁾ 라고 밝힌 것처럼 정조는 신하들에게 상당한 양의 어찰을 보냈다. 홍씨가 말한 것처럼 글쓰기를 좋아한 정조의 취향이 정치운영방식과 결합하여 밀찰의 교환이란 방식을 운영하였다. 그 실물로는 현재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350통과 정민시(鄭民始)에게 보낸 어찰 235통이 확인되었다. 또 채제공에게 보낸 어찰 수십 통이 확인되었으나 실제로는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추정한다. 그밖에 조심태, 서형수, 남공철, 윤행임 등에게 보낸 어찰이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현재 알려진 어찰의 대부분은 1790년 이후 대신들에게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찰의 교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훗날 고종이 영의정 이유원(李裕元)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정승 채제공(蔡濟恭)과 김익(金燧)에게 하사한 정조 어찰이 궁궐에 소장되어 있음을 밝힌 사실⁴⁾을 주목해야 한다. 동원(東園) 13학사의 일원으로 1780년대에 정승을 지낸 김익에게 어찰을 보냈음을 고종이 확인해준 것인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조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대신과 밀찰을 주고받았음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의 발굴 이후 주로 심환지와 채제공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정조 치세 전반으로 확대하여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박종악이 정조에게 보낸 밀찰을 통해 1790년대 초반에도 비밀편지의 왕래가 빈번했음을 확인해준 사실로 볼 때 그 이전에도 비밀편지의 교환이 전개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비밀편지를 정국운영에 활용하는 정조의 국정운영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치세 말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세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었음을 밝혀주는 이 사실에 필자는 주목하고자 한다.

정조는 예상을 뛰어넘어 비밀편지의 교환에 집착하였다. 평소에 조정 신하들에게 편지를 대단히 많이 하사했다는 혜경궁 홍씨의 언급은 결코

3) 洪龍漢, 『御墨帖』, 〈御墨帖跋〉, 홍기창 소장. 발문 전체는 안대회(2011), 앞의 글, 181-183쪽에 원문과 번역문이 제시되어 있다.

4) 『승정원일기』, 1875년 고종 12년 3월 25일 기사. “上曰: ‘正廟時, 蔡相濟恭·金相燧, 皆有御札之蒙賜, 亦在內藏矣.’ 裕元曰: ‘古者大臣附奏有云伏承手札, 又奉敦諭云云, 則其有手札, 可知矣.’”

헛말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 수량이 대략 천오백여 통에 이른다고 추정하지만 그 수량은 일부에 불과하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 사이에 자유로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편지였다. 조선 사회는 편지공화국의 주요한 일원이었고, 정조는 명실상부하게 그 편지공화국의 제왕이었다.⁵⁾

2. 비밀편지의 성격과 정보

국왕은 최고 권력자이지만 궁궐 밖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국왕은 인척이든 관료이든 궁궐에 들어와야 대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국왕 주변에는 사람들로 붐벼서 사적이고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심환지에게 “어제 만났을 때는 사람이 많고 번잡했기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만 못하다”(521)라고 말하는 등 많은 어찰에서 비슷한 투의 말을 자주 하였다.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자유롭게 상의하고 격의 없이 대화하기가 힘들었다. 신하 편에서도 궁궐 출입이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 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만들기가 힘들었다.⁶⁾ 사사로운 감정을 주고받고, 속을 터놓고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며, 외부의 정보를 속속들이 듣고 싶은 욕망은 국왕이라 해도 손쉽게 실현할 일이 아니었다.

밀찰은 사적이고 자유로우며 비밀스런 의견의 교환 도구로서도 그만이였다. 신하에게 보낸 정조의 어찰에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거나 농담과 욕설까지 하는 등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박종악이 정조에게 보낸 밀찰에는 진지하고 공손한 태도를 시종 잃지 않고 있다. 군신 간의 밀찰이 지닌 상대적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정조에게 어찰은 사적 개인으로서 일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간편한 도구였다.

사실 조선시대의 국왕은 궁궐 밖 대신들과 공적 사적 연락을 취할

5) 다윈주의 문화를 발전시킨 핵심적인 요소로 편지를 주목한 조엘 모키르 저, 김민주·이엽 역,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지적 기원』(에코리브르, 2018)에서는 근대 유럽 지식인 사회를 편지공화국이란 명제로 분석하였다. 조선은 더 근원적으로 편지공화국 사회에 가깝다.

6) 고려대학교 소장 어찰 중에는 궁 밖으로 나가서 도봉산을 오르고 싶다는 정조의 소망을 피력한 내용이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각종 공식 문서가 궁 밖 관료나 친지 사이에 오갔고, 승지나 사관, 내관, 액예와 같은 공적 체계의 연락책을 중간에 넣어 연락을 취하였다. 유서(諭書)와 같은 국왕의 공적인 명령이 내려가고, 신하들은 상소나 차자(劄子)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다양한 길이 열려 있었다. 그뿐 아니라 지방에는 지방관이나 어사 등을 파견하여 정보를 받고, 신하들은 장계(狀啓)를 비롯한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였다.

정조는 공식 체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국왕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궁궐 밖 신하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밀찰을 애용하였다. 밀찰을 교환하여 ‘현명한 신하를 사사로이 대함으로써’ 고위관료와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어 신하의 충성을 유도하고, 정보와 의견을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하고자 하였다. 정보와 지식 전달의 보편적 수단인 편지를 신하를 통제하고 기밀을 담아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밀편지는 선택된 관료를 사조직 구성원처럼 이용하고, 다른 관료를 배제하는 방식이 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밀찰로 확보된 정보는 신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명성 높은 문신인 김매순(金邁淳)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정조대왕은 …… 제왕으로서 결단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중도를 벗어났다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고, 촛불처럼 비추어 빠트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살펴본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것은 사사로운 지혜와 작은 변론재능을 가진 자들이 천지처럼 크고 해달처럼 밝은 성상에 대해 감히 입을 놀리는 것이다.⁷⁾

이 글에서 정치가 정조의 두 가지 특징을 거론하였다. 하나는 독단적 제왕으로 행세하여 중도를 벗어났다는 점이고, 하나는 촛불처럼 비추어 빠트림이 없어서(燭照無遺) 신하들이 정조를 지나치게 세밀하게 살펴본다(太察)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는 군권(君權)에 비해 신권(臣權)이 지나치게 약해진 점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많은 신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누구도 정조의

7) 金尙鉉, 「臺山先生行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57-가899), 사본(1868). “乾斷斯赫, 故或慮其過中; 燭照無遺, 故或疑其太察. 是則挾私智小辯者之敢議夫天地之大日月之明也.”

시선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정조의 정치 운영방식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김매순은 강하게 부정하는 편에 서 있다. 하지만 김매순의 판단과는 다르게 정조의 정치에는 그와 같은 특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정조는 주요한 신하들의 관직 생활과 비리, 개인사, 집안과 가족관계, 심지어는 내면의 동향과 심리까지 공적이고 사적인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였다. 정조의 이런 편향을 입증하는 비제도적 장치가 바로 비밀편지의 운용이었다.

현재 전하는 밀찰에는 실제로 신하들의 사생활과 비리, 성격 등을 밝힌 사적 정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 있다. 궁궐 안에 간혀 있는 국왕으로서 궁궐 밖에 횡행하는 혼란스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파악했을까? 궐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많은 정보원을 확보하였기에 가능한 정보량과 정확성이다. 정보의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밀찰의 왕래였다.

3. 기밀유지와 전담 팽레

어찰은 성격상 역대 국왕이 이용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전유(傳諭)의 한 형식이다.⁸⁾ 다른 국왕들도 비밀에 부쳐야 할 어찰을 쓴 경우가 있었다. 광해군, 효종, 사도세자가 밀찰을 수수한 사례가 있다. 정조는 역대 국왕의 어찰 교환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그중에서 특히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낸 효종의 밀찰 교환에 주목하였다. 이 밀찰 교환은 매우 유명하므로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⁹⁾ 사도세자 역시 대리청정할 때 밀찰을 교환한 일이 있다. 춘천에 머문 소론(少論) 재상 조재호(趙載浩)에게 밀찰을 보냈고, 조재호의 조카 조유진(趙維鎭)과 춘방(春坊) 관원인 이만회(李萬恢) 등이 연락책 역할을 맡았다. 이만회는 그 밀찰을 열어보고 홍계능(洪啓能)에게 기밀을 누설하여 임오화변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유포되기도 했다.¹⁰⁾ 정조는 틀림없이 사도세자의 밀찰 교환과 연락책

8) 이근호, 「조선 후기 御札의 傳統과 『正祖御札帖』」, 『동국사학』 47(2009), 93-130쪽;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문학동네, 2010), 27-35쪽.

9) 우경섭, 「輻對說話와 효종의 비밀편지」, 『한국학연구』 50(2018), 219-244쪽.

10) 정약용 저, 김언중 역주, 『龍純錄』(실학박물관, 2014), 222-224쪽. “林夏源先生, 壬子夏南學疏頭也. 其疏討壬午謬逼諸人之罪【徐命膺之等】. 丙寅春, 因金達淳奏, 再謫金甲

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효종의 경우는 성공한 사례로, 사도세자의 경우는 실패한 사례로서 정조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분히 확인하고 밀찰의 교환에 귀감과 경계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밀찰의 교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밀의 유지였다. 밀찰 자체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기에 상당한 수준의 기밀을 유지해야 했다. 궁궐 밖 신하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려 할 때 철저한 기밀의 유지는 그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기밀의 유지에는 국왕과 신하를 연결하는 팽례(倂隸)라는 전달 연락책을 사용하였다. 팽례는 주로 승정원 소속의 정원사령(政院使令)이나 신하의 겸종(兼從)이 맡았다. 팽례는 직책이 아니라 편지의 전달 또는 구전(口傳)의 전달을 담당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다.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이나 박종악이 정조에게 보낸 밀찰에는 팽례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 신신당부가 적지 않게 밝혀져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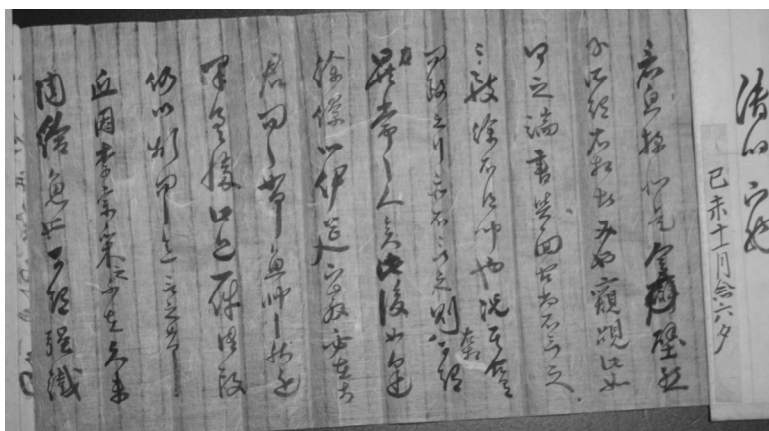


사진1-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과 피봉, 1799년 11월 26일 저녁에 받은 어찰. 개인 소장. 팽례 이종재의 이름이 보인다.

島而沒。其言曰：‘李參判萬恢【李承旨祉永之父】，嘗爲莊獻之春坊，莊獻信之。每有密札於趙相載浩，令李傳之。李陰爲開坼，令其子社承先示洪啓能，然後傳于春川【趙時在春川】，以故機密先洩于賊邊，而李之子社永疏，稱引其先臣有若效忠於莊獻者，甚可哈也。’
○案朴公此言，恐謬。” 여기서 이지영의 상소는 1792년 윤4월 19일에 柳星漢의 상소사건이 불거진 뒤에 올린 것으로 임오화변 때의 역적과 부친 이만회의 처신을 논했다. 정약용은 그런 견해가 오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11) 안대회(2010), 앞의 책, 59-62쪽.

그중에서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에는 “여기의 하례(下隸)는 보는 눈과 귀가 많아서 낮에는 정말 보내기 어렵다. 이후로는 이 점을 알고 그대의 겸종을 자주 보내되 겸종 가운데 잡류가 많다고 들었으니 속아낼 방도를 생각하고 더욱 치밀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가?”¹²⁾라는 당부가 보인다. 전담 연락책을 국왕이나 신하의 심복 가운데 선택하였고, 밀찰에는 약칭으로 김예(金隸)와 인예(仁隸)가 여러 차례 나온다. 새로운 자료를 통해 필자는 두 명의 특정한 평례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이종채(李宗采)라는 평례이다.

어수(魚帥)[魚用謙]의 병은 요사이 과연 나아졌는가? 여기에 전교 한 건을 보내니 가는 김에 안부를 묻는 뜻을 말해주는 것이 어떠한가? 요사이 이종채가 없어 오랫동안 물품을 보내주지 못했으니, 어(魚)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라 하겠다. 꺾꺾! 서산 군수(金履永)와 영암 군수(宋文述)에게는 도내의 농사 상황과 백성들의 마음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되, 역시 어(魚)를 시켜 그들의 게으름을 각별히 신척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¹³⁾

이종채는 정조 말엽에 수문장(守門將)을 지낸 무인으로 정조의 밀찰을 어용겸이나 심환지에게 전달하던 평례로서 두 차례 등장한다.¹⁴⁾ 이종채가 없어서 장기간 물건을 보내지 못한다고 했으니 각별한 신임을 받은 평례였다. 서형수(徐滢修) 역시 정조와 밀찰을 주고받았고, 그 사이에 평례로 오간 이는 규장각 사권(司卷)을 지낸 한명혁이었다. 한명혁의 양아버지 묘를 이장할 때 묘지명을 부탁받고 서형수가 흔쾌히 지어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규장각 사권(司卷) 한명혁(韓命奕) 군은 …… 옛날 선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12) “此中下隸，恐煩耳目，晝則果難。後必知此，頻送貴儂，而聞儂屬多雜類云，須思澄汰之方，益存縝密之工。如何？如何？”(〈417〉, 1798. 11. 18. 밤)

13) 정조의 어찰, 개인 소장, 수신자 심환지. “魚帥之病，近果差勝？此送一件傳教，仍以煩問之意言之如何。近因李宗采之不在，久未周給，魚也可謂強鐵之秋，呵呵。瑞倅·靈倅許道內穡事民情詳探，亦令魚也另飭其懶惰如何。”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가운데 『정조어찰첩』에 실리지 않은 수십 통이 흩어져 전한다. 그중에서 1799년 11월 26일 저녁에 받은 어찰이다.

14) 1799년 5월 27일 식사할 때 심환지가 받은 어찰에 “承復慰喜。望望一念，惟在沛然。多少都留，而鄭正別幅覽還，即傳兩人許，如何。李宗采口宣事，亦望留意耳。姑此。”라는 내용이 있다. 어찰의 지시와 함께 이종채가 구두로 정조의 지시를 심환지에게 전하고 있다. 이 밀찰 역시 개인 소장이다.

적에 늘 편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에게 보내는 어찰이 있거나 신이 대왕의 하문에 응답할 편지가 있을 때마다 한 군이 실제로 그 출납(出納)을 맡아보았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오래 묵은 인연이 있으니 지금 어찌 차마 사양하리오. 이에 글을 써서 묘지명을 짓는다.¹⁵⁾

한명혁은 규장각 잡직인 사권과 감서(監書)를 지낸 인물로 정조와 서형수의 전담 팽례로서 친분을 두텁게 쌓아서 서형수는 그의 사사로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인용문은 한명혁이 평상시에 늘 편전(便殿)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군신 사이에 밀찰을 전달하던 팽례의 역할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종채나 한명혁과 같은 전담 팽례의 존재는 밀찰의 위상과 기밀유지가 군신 사이에 중시된 양상을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Ⅲ. 비밀편지와 기밀의 내용

비밀을 전제로 한 밀찰에는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의 기밀 사항이 담겨 있다. 기밀의 주제는 관료의 인사문제와 정치현안, 상소와 여론동향의 파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295통을 수록한 『정조어찰첩』을 기준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비중이 나온다.¹⁶⁾ 충청도 관찰사와 우의정으로 재직할 때의 밀찰로 구성된 박종악의 『수기』는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도 동향과 정보수집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¹⁷⁾ 밀찰에 고루 나타나는 주제는 관료의 인사문제와 정치현안, 주요 관료의 신상정보와 여론과 정보의 수집이었다. 구체적인 정치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밀찰을 분석하면 민감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밀찰이 행한 역할이 드러나고, 그 역할이 정조대 정치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밀찰을 주고받았고, 실물이 체계적으로 보관

15) 徐滢修, 『明阜全集』 권16, 「西原韓君墓誌銘」, 한국문집총간 261집. “奎章閣司卷韓君命奕, …… 昔我寧考之在宥也, 韓君常祇候閣門, 凡有宸翰之及於臣, 臣所以對揚清問者, 韓君實掌出納. 故於余有宿好焉, 今何忍辭, 乃序而銘之.”

16) 백승호,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내용 개관」, 『대동문화연구』 66(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31-78쪽.

17) 장유승, 「1791년 내포: 박종악과 천주교 박해」, 『교회사연구』 44(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63-104쪽.

된 박종악과 심환지의 밀찰에는 해당 시기 정국 현황과 관련한 핵심적 안건이 등장하고 있다. 박종악이 충청도 관찰사와 우의정으로 재직 중이던 1791년-1795년 사이에는 충청 내포지역의 천주교도 동향과 도당록(都堂錄) 사건, 유성한(柳星漢)의 상소와 영남만인소 사건 등이 큰 현안으로 대두하여 정국이 요동을 쳤고, 심환지가 이조판서와 우의정, 좌의정으로 재직 중이던 1796년-1800년 사이에는 수많은 현안 중에서 한원진(韓元震)의 이조판서 추증이 현안의 하나로 대두하였다. 서로 다른 시기에 정조가 국정의 중심축이었던 두 정승과 주고받은 밀찰은 정조의 정치운영 방식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당시의 역사기록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정조의 정치운영에서 차지하는 밀찰의 기능과 의의를 살펴본다.

1. 도당록(都堂錄) 현안과 정약용을 거부한 박종악의 밀찰

박종악은 영조의 부마 박명원(朴明源)의 조카로서 정조가 즉위한 뒤에 역적으로 처단된 홍인한, 정후겸 등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1790년 이후 뜻밖에도 충청도 관찰사와 우의정에 적극적으로 중용되었다. 박종악이 지닌 정치적 위상으로 놓고 볼 때 정조가 의도적으로 실세(失勢)한 인물 가운데 신하로 선택하여 중책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관찰사로 재임하는 동안 정조의 지시에 따라 내포 지역의 천주교 신자를 교화하고 그 동향을 면밀하게 정탐하여 보고하였다. 그 공로로 신임을 얻어 1792년 봄에는 전격적으로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박종악이 정조에게 밀찰을 보낸 시기는 1791년부터 1795년까지로 밀찰 원본은 전하지 않고 105통의 밀찰을 베낀 사본 『수기(隨記)』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수량은 1791년에 25통, 1792년에 46통으로 이 시기에 밀찰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1792년 당시에는 남인 정승 채제공이 1790년 이래 좌의정의 자리에 있었고, 그해 9월 우의정 김종수가 모친상을 당하여 물러나서 영의정과 우의정이 공석이 된 채 독상(獨相)

18) 1790년대 전반기에 정조는 노론 신료 가운데 박종악을 선택하여 우의정에 임명하였고, 1790년대 후반기에는 沈煥之를 선택하여 우의정, 좌의정에 임명하였다. 두 사람은 정조와 정치적 동반자가 되기에는 본디 부적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세력의 지도자급으로서 정승에 임명되기에는 본디 세력이 약하였다. 그런데도 정조는 특별히 그와 같은 중책을 부여하여 자신의 정책을 보좌하는 중신으로 삼았다.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이때 박종악이 새로 우의정 자리에 앉았으므로 그 임무가 막중하였다. 이 시기에 편지가 집중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정치현안이 많았고, 체제공과 맞서는 그의 위상이 높았음을 말해준다.

1792년에는 유성한(柳星漢)과 윤구종(尹九宗)의 상소 및 뒤를 이은 영남만인소로 임오화변과 사도세자의 재평가 문제가 정국을 크게 뒤흔들었다. 정조대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건의 처리에서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박종악이다. 토역론자(討逆論者)로서 박종악은 줄곧 김종수(金鍾秀)와 김귀주(金龜柱) 등 노론남당(老論南黨)을 처벌하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였다.¹⁹⁾ 박종악의 밀찰은 공식 사료와 더불어 이 시기 정국의 복잡한 전개를 해명하는데 기여한다. 다만 이 안건은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인물이 가담하여 간명하게 다루기 힘들다. 여기에서는 그 직전에 발생했던 또 다른 주요한 안건인 도당록(都堂錄) 문제를 다루어 밀찰을 통한 정조의 정치운영을 살펴본다.

도당록은 홍문관 관원 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선발자가 고위관료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1차로 홍문관에서 선발한 명단을 홍문록, 2차로 이조에서 선발한 명단을 이조록, 3차로 의정부 곧 도당에서 고관들이 모여 확정된 명단을 도당록이라 하였다. 여기에 선발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출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당파간의 위상 등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1792년 3월 5일 정조는 좌의정 체제공에게 도당록을 주관하라고 지시하였고, 3월 22일에 홍문관 부제학이 주관하여 24명의 후보자를 선발한 홍문록이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3월 27일 좌의정 체제공, 우의정 박종악과 이조판서와 참판, 대제학 등이 합좌하여 회권(會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두 정승의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도당회권(都堂會圈)을 하지 못하고 의금부에 가서 대죄(待罪)하자 정조는 박종악을 나무라고 체제공의 뜻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정조는 체제공의 뜻에 따라 이의준(李義駿)·송준재(宋俊載)·유하원(柳河源)·장지현(張至顯)·김희직(金熙稷)·이경명(李景溟)·박사묵(朴師默)·이현도(李顯道)·이복윤(李福潤)·심규로(沈奎魯)·정래백(鄭來百)·한상신(韓商新)·이지

19)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외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238-277쪽.

담(李之聃)·한치응(韓致應)·윤제동(尹齊東)·이상황(李相瓚)·정약용(丁若鏞)·박윤수(朴崙壽)·김이교(金履喬)·유한우(兪漢寓)·윤노동(尹魯東)·이명연(李明淵)·김달순(金達淳)·이익모(李翊模)·홍수만(洪秀晩)·이조원(李肇源)·홍대협(洪大協)·정동간(鄭東幹) 28명을 홍문관 관원 후보자로 공포하였다. 공포함으로써 이 안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알렸다. 박종악의 반발과 대제학, 이조판서, 이조참판의 해임이 이어졌고, 좌의정, 우의정의 사직상소와 후보자 전원의 인협(引嫌) 상소 등이 이어지는 등 이후로도 상당 기간 파장이 이어졌다.

도당록 안건에서 핵심 관건은 남인 좌의정 채제공과 노론 우의정 박종악의 다툼이고, 실질적 요인은 기피 인물의 선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남인 신진 관료인 유하원과 이경명, 심규로와 한치응, 정약용을 박종악과 노론 세력이 막으려 한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정약용의 진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공식 사료에는 경과 과정과 국왕의 지시, 신하의 상소, 그리고 처리결과만이 기록되었고, 그 내막과 실질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인과 노론의 갈등으로 사건이 불거졌다는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기가 쉽다. 하지만 박종악이 정조에 올린 밀찰과 정약용의 문집에 실린 관련한 기록을 보면, 그 이면에 오간 갈등과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기피인물이었던 유하원, 이경명은 채제공의 풍단시사(風壇詩社)에서,²⁰⁾ 정약용과 한치응, 심규로는 정약용의 죽란시사(竹欄詩社)에서 함께 활동한 신진 남인관료였다.²¹⁾ 채제공은 노론과 소론, 남인 세 당파에서 각각 여덟 명씩 모두 24명을 안배하여 뽑기로 국왕과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종악은 그 수효와 당파 배분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약용과 이경명 등의 선발을 거부하면서 회권을 이틀 앞둔 26일자 밀찰에 근거를 밝혔다. 회권에 앞서 정조는 무엇이 갈등의 요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밀찰에서 박종악은 여론을 수집하여 평가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골랐고, 평가 내용과 선발 명단을 다시 작성하였다. 위 명단에서 장지현을 장지면(張至冕)으로, 박시묵과 이현도를 엄기(嚴耆)로, 정래백을 이의준으로, 한상신을 유한우로, 이지담과 이경명 대신에

20)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詩社 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한문학회』 제26집(2012), 101-127쪽.

21) 안대회, 「다산 정약용의 竹欄詩社 결성과 활동양상: 새로 찾은 竹欄詩社帖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3(2013), 93-129쪽.

천주교 신자라는 여론이 비등했던 사실을 놓고 볼 때 여론을 근거로 한 박종악의 선발 거부는 타당한 문제제기였다.

정조는 세 통의 밀찰을 연달아 박종악에게 보내 체제공의 뜻을 따르라고 종용했다.²³⁾ 하지만 박종악은 “만 필의 소로 끌어도 돌릴 수가 없고(萬牛難回), 귀마개를 한 듯이(充耳) 자기 뜻대로만 하는 체제공의 도당록·실은 정조와 합의한 선발록·에 동의할 수 없음을 28일자 밀찰에서 밝히고 노론측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경고하였다. 그의 말대로 노론측 젊은 관료들이 박종악의 반론에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4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도당록에 뽑혀 직책을 부여받은 부교리 이조원(李肇源), 부수찬 김달순(金達淳), 부교리 김이교(金履喬) 등 노론 관료가 자격 없는 사람이 선발되었음을 문제 삼아 자신의 이름을 도당록에서 빼달라는 인혐(引嫌) 상소를 차례로 올렸다.²⁴⁾ 그중에서 김달순은 도당록이 “오로지 색목(色目)의 많고 적은 수량을 따졌고, 공정하게 사람을 선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구차하게 인망(人望)에 부합하지 않는 잡스러운 자로 숫자를 채웠다.”²⁵⁾라며 비판하였다.

『정조실록』에는 세 명이 각자의 소신에 따라 상소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박종악과 교감했거나 상의를 거쳐 나왔음이 분명하다.²⁶⁾ 4월 5일을 전후한 두 통의 밀찰²⁷⁾에서 정조가 여러 차례 밀찰을 보내 도당록에 합의하라고 했으나 박종악은 김달순의 상소와 그에 대한

22) 정약용의 외조부는 尹德烈이다. 1791년 외사촌인 윤치중이 그 어머니의 祀版을 불태운 것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킨다.

23) 박종악 저, 신익철 외 역, 『수기: 정조의 물음에 답하는 박종악의 서신』,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120쪽. “신이 얼마 전 세 통의 어찰을 받고 세 번 뒤풀이해 읽었습니다.[伏以臣於昨今伏奉三度天札, 三回圭復.]”

24) 李肇源의 『玉壺集』 권11에 실린 「辭應教疏」(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본)가 이때 올린 상소이다. “昨春新除, 格例乖違, 遴選猥雜, 物情之駭惑, 公議之嗤點, 至今未已.”라 하여 비판하였다. 그러나 평범한 상소여서 박종악은 마땅치 않게 여겼다. 한편 정규영이 지은 정약용의 연보 『侯菴先生年譜』에서 관련한 곳에는 “당시 누군가의 말이 있어서 도당록에 오른 모든 사람이 引嫌하였다.[時有人言, 全錄皆引嫌.]”라고 밝혔다.

25) 『正祖實錄』, 1792년 4월 5일의 金達淳 상소. “惟以色目較量多寡, 至於恢公擇人, 則念所不到, 苟然以猥雜不稱人望者充數.”

26) 『승정원일기』 4월 9일자 기사에는 이 세 명의 도당록 상소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정조가 박종악에게 말하였다. “宗岳曰: ‘金達淳之人器地處, 果何如, 則今番陳疏, 豈有挾雜之理乎?’ 上曰: ‘非但達淳也, 李肇源乃是先倡. 若以策文論之, 肇源之疏爲題, 達淳之疏可謂中頭, 金履喬疏爲逐條. 其所救措之策, 惟在卿等, 須思善處之道也.’”

27) 박종악의 『수기』에는 두 통의 밀찰이 4월 5일과 4월 8일 사이에 들어있으나 3월 25일자에 보낸 편지라고 기재해 놓았다. 내용상 5일 전후에 쓴 밀찰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조의 비답을 본 뒤에나 상소할 것이며, 또 도당록 명단을 개정하는 개록(改錄)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달순(金達淳)이 도당록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한 데서 박종악과 교감하여 상소를 올렸고, 상소가 나오기 이전부터 정조가 그 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김달순이 잘못된 인선의 구체적 인물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박종악은 정조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누구누구를 말하는지 내놓고 쓰도록 해보겠다고 하였다. 내용으로 보아 정조가 밀찰에서 지시한 것을 김달순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김달순의 상소를 비롯해 공식기록에는 인망에 맞지 않는 선발자로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밀찰을 통해 남인 관료, 그중에서도 정약용을 특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은 정약용의 관련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약용 연보에서 “당시 논의에서 공의 흉문록을 막으려 했다.”²⁸⁾라고 밝혔는데 당시 논의란 바로 박종악의 주장을 가리킨다. 또 『여유당전서』에는 이 시기의 도당록 파동과 관련한 상소문 두 편이 실려 있다.²⁹⁾ 문집 권9에 실린 「사부교리소(辭副校理疏)」와 「사교리겸진소회소(辭校理兼陳所懷疏)」로써 전자에는 다음 내용이 보인다.

신이 엎드려 들건대, 일전에 도당록이 나온 뒤로 물의(物議)가 가라앉지 않고 대간(臺諫)의 논평이 이미 일어났다 합니다. 탄핵 상소에는 성명을 드러내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신과 같이 노둔하고 망령된 자가 명단에 끼이지 않았다면, 조정의 의견이 몇 갈래로 나뉘거나 물의를 가라앉히기는 어렵다 해도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문학과 문벌에서 신보다 나은 이들이 모두 의리를 내세워 시작하고 자 하거늘 신이 대체 뭐라고 감히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사은숙배하겠습니까?³⁰⁾

28) 丁奎英, 『侯菴先生年譜』 16년 壬子 公三十一歲. “時議欲枳公館錄.”

29) 이 무렵에 지은 시로 「玉堂違召述懷」는 1782년 3월 28일 밤에 도당록에 올라 부교리에 임명되었음에도 패초를 거부한 감회를 쓴 작품이고, 「講筵退有作」은 경기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 지었으므로 4월 10일 어름의 작품이다. 「大酉舍同金(義淳)·金(履喬)·李(明淵)諸僚, 奉旨寫御製詩卷」은 4월 11일 도당록에 함께 뽑힌 동료들과 지은 시이다. 4월 9일 진주목사 제임 중이던 부친 정재원이 위독하다는 급보를 받고 11일 바로 진주로 내려갔다.

30) 정약용, 『정본 여유당전서』 제2책, 文集 권9, 「辭副校理疏」, 사암. “臣伏聞日前堂錄之後, 物議未平, 臺評已發. 雖其彈章之內, 未有名字之指摘, 而苟不使如臣鹵莽者參錯其間, 朝論雖曰多歧, 物情雖曰難平, 亦豈有是哉? 今文學地望之過出臣右者, 皆引義控辭, 臣尤何人, 乃敢揚揚乎出肅哉!”

문집이나 논문에서 이 상소가 언제 쓰였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틀림없이 1792년 3월 29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쓰였다.³¹⁾ 박종악에게 배척당한 사실과 이조원, 김달순, 김이교가 사직한 사실을 암시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저들의 상소에서 성명을 꺼내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배척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상소 역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조의 엄명에 따라 홍문관에 나가 근무하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다.³²⁾

박종악에게 보낸 정조의 밀찰이 현존하지 않아 정약용을 두둔하고 박종악의 탄지결기를 타하는 육성을 듣지는 못한다. 다만 정조는 정약용의 집안이 홍문관 벼슬을 세전(世傳)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도당록에서 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박종악의 반대를 무위로 돌렸다.³³⁾ 박종악의 밀찰은 도당록 대상 인물의 선정과 반대하는 세력의 무마에 처음부터 끝까지 국왕의 지시와 회유가 있었고, 중요한 고비마다 밀찰로 지시와 설득, 조정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도당록이 대신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국왕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정조의 경우에는 국왕의 판단과 의중이 무엇보다 우선하였고, 실상은 과정의 시초부터 끝까지 주도하였다. 공개적인 상소와 지시는 정치 행위를 공식화하는 절차로 작동하고 있을 뿐 국왕이 주도하고 정승은 밀찰을 통해 국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박종악의 경우 좌의정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밝기보다는 국왕과 밀찰을 주고받으며 은밀하게 뜻을 관철하려 했다. 밀찰에는 정약용의 천주교 신앙과 체제공 측근 위주의 인선을 명료하게 밝혔으나 공식적인 조정 회의나 상소에서는 한번도 거론하지 못했다. 틀림없이 정조가 밀찰을 통해 박종악의 반발을 제어하였을 것이다. 현존하지 않는 밀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로 도당록 사안은 유성한의 상소가 나오는 바람에 수면 아래로 묻혀버렸다. 하지만 정조는 유성한의 상소가 도당록과 관련이 있다고

31) 조성을, 『年譜로 본 茶山 丁若鏞』(지식산업사, 2016), 231-235쪽. 각종 기록을 통해 도당록 사건 전후의 정약용 행적을 밝혀놓아 크게 참고가 되나 이 두 편의 글은 언급하지 않았다.

32) 정약용, 「辭校理兼陳所懷疏」, 앞의 책, 같은 곳. “疏將成, 因嚴教荐降, 促令肅命, 不得已入謝, 直宿玉堂. 其夜爲露梁別將, 仍爲京圻暗行御史, 疏果不上.”

33) 정규영, 앞의 책, 같은 곳. “上謂筵臣曰: ‘玉堂是丁家世傳之物, 丁某不可拔於館錄.’ 遂無貳議.”

보기까지 하였다.³⁴⁾ 지금은 박종악의 밀찰만 남아있으나 정조와 채제공 사이의 밀찰, 정조가 박종악에게 준 밀찰이 적어도 각각 10통 내외로 오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도당록과 관련하여 적어도 40통의 밀찰이 정조와 채제공, 정조와 박종악 사이에 오갔다. 공식기록에는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와 참판, 홍문관 관원 외의 상소와 사직상소 등이 거듭 나오고 있으나 처리 과정에서 핵심적 관건은 정조와 주고받은 밀찰임을 도당록과 관련한 사료가 증명한다.

그 뒤로도 몇 번에 걸쳐 정조는 도당록 처리를 순탄하게 하지 못한 박종악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아예 박종악을 우의정으로 등용한 자신의 선택을 실수라고까지 말했다. 그렇다면 정약용을 배제시키려고 도당록에 탄지를 건 박종악은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것일까? 아니면 정조의 요구를 따라 이름을 밝히고 정약용을 거부했으면 거부가 받아들여졌을까? 밀찰을 놓고 볼 때 막 정승이 된 박종악은 정조와 채제공, 그리고 정약용의 잘 짜서 맞춘 도당록 구도에 선불리 덤뻐다가 당한 꼴이다. 박종악이 끝이어서 우의정 직책에서 해임된 동기도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추숭(追崇)과 정조의 밀찰

앞에서 도당록이란 안건을 주제로 박종악이 정조에게 보낸 밀찰의 내용과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원진이란 명현(名賢)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안건을 주제로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의 내용과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³⁵⁾ 18세기 경기와 호서의 학계는 낙론(洛論)과 호론(湖論)으로 갈려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고 다를 수 있는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두고 큰 논쟁을 벌였다. 이는 18세기 유학계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³⁶⁾ 낙론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노론 시파들이 참여하여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같고 범인도 존재가

34) 8월 21일 筵席에서 정조는 박종악에게 “都堂會圖에서 허물을 좌의정에게 떠넘기고 사사건건 각을 세워서 김달순과 같은 자가 나왔으나 상소에 (문제 삼은 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유행이 되어 유성한 상소가 나오기까지 했다.歸咎則譏之於左相, 節節崖異, 故如金達淳出, 而不露名, 故因爲時套, 至出星漢疏矣.”라고 질책하였다.

35) 호락논쟁과 한원진 추증에 얽힌 구체적인 과정은 권오영의 「호락논변의 쟁점과 그 성격」,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돌베개, 200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6) 이경우, 『조선훈, 철학의 왕국: 호락논쟁 이야기』(푸른역사, 2018).

치가 있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포용적이고 타협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반면에 호론은 호서 지역 노론 벽파가 주축이 되어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강조하고 중화와 오랑캐, 군자와 소인의 차별을 내세웠다. 그에 따라 노론만이 군자로서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성향을 보였다. 정순왕후의 친정인 호서 출신 김귀주의 남당(南黨)을 주축으로 하여 김종수, 심환지 등의 벽파는 상대적으로 호론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학술적 논쟁은 정치세력의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언제든 정치적 갈등과 논쟁으로 부상할 민감한 사안으로 잠복했다가 호론의 영수인 남당 한원진을 이조판서에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려는 시도로 불거졌다. 1799년 10월 13일 김운주(金雲柱)를 소두(疏頭)로 하여 635명의 호론계 선비가 추증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에서 그 업적을 평가하여 “오래될수록 더해가는 여러 학자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라고 하여 은연중 낙론을 비판한 것이 낙론계 학자를 자극하여 두 학파 간에 큰 논쟁이 벌어졌고, 정치적 갈등으로 번졌다. 이 논쟁과 관련한 문건을 모아 놓은 저작이 『불이언(不易言)』(편자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과 『호락사실(湖洛事實)』(편자미상, 장서각 소장)이다.

상소가 올려진 이틀 뒤인 15일 『정조실록』 기사에는 한원진에게 이조판서를 추증했다고 기록하는 등 공식기록에서는 이 사안의 과정과 처리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데 그쳤고, 위에 제시한 2종의 책도 상소나 편지와 같은 문건만을 시기 순으로 실어놓아 갈등의 구체적 내용과 국왕과 대신들의 반응과 처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큰 문제 없이 정치세력간의 작은 다툼과 조정으로 해결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은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풍파가 거세게 일어났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조는 이 사안을 두고 심환지와 열한 차례 정도로 편지를 주고받았다.³⁷⁾ 14일 아침에 보낸 어찰에는 추증이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과 절차, 예법을 설명했는데 박학하고 정확한 식견을 잘 드러냈고, 정승의 처신을 세심하게 지시하고 신하의 찬반심리를 포착하는 능력까지 보여주

37) <453>(날짜 미상), <529>(10. 14. 아침), <530>(같은 날), <531>(같은 날 새벽), <532>(10. 16.), <533>(10. 17.), <540>(11. 22.), <541>(11. 23. 아침), <542>(11. 24. 아침), <546>(12. 19.)이 관련한 편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1799년 11월 20일 밤의 어찰도 관련이 있다.

었다. 이조판서로서 낙론계에 속한 서용보(徐龍輔)가 이조판서의 증직을 꺼리는 이유를 추정하였고, 이서구(李書九)가 찬동한 의도를 호락논쟁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데서 찾기도 했다.³⁸⁾ 또 여론을 가라앉히려고 세력이 큰 김조순(金祖淳)을 입도 뺏기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³⁹⁾ 국왕이 발언해서는 안 될 성격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11월 22일을 전후하여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이 「김운주 상소문 뒤에 쓴다」⁴⁰⁾란 발문을 써서 호론을 비난하고 낙론을 지지하는 등 낙론계 학자들이 반발하자 정조는 분노가 폭발하여 심환지에게 장문의 어찰을 여러 통 보냈다. 다음은 그중의 하나이다.

듣자하니 서직수(徐稷修)라는 자가 긴 편지를 써서 동료들 사이에 전파하였는데, 남당(南塘)을 매우 심하게 비방하였다고 한다. 그는 시속에서 말하는 만무장(萬無匠)의 형이면서 무슨 지식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유한재(兪漢宰)와 김기서(金基胥) 같은 것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 볼 보듯 뻔하다. 대저 유한재와 김기서는 본디 단정한 선비가 아니고, 부형의 위세를 팔아 유자(儒者)의 말을 하면서 묵자(墨者)의 행동을 하기에 일찍부터 몹시 미워하던 자들이다. 지금 또 이렇게 하니 어찌 심히 분하지 않겠는가? 또 김매순(金邁淳)처럼 입에서 아직 젓내가 나는 자가 감히 선현(宋時烈)을 모욕하여 붓끝에 올리기가까지 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조정에 어른이 있다고 하겠는가? 경에게는 모두 가까운 사이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찌 형세가 더 커지기 전에 즉시 바로잡지 않았는가? 유념하고 유념하라. 만류할 때에는 반드시 경의 뜻이라고 말하고, 절대 이런 말투와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⁴¹⁾

호론에 찬동하는 심환지에게 보내는 밀찰이기에 낙론계 젊은 선비의

38) “이 이조 판서(徐龍輔)는 [낙론인] 한천(寒泉)[李緯] 집안에 은혜를 입어 존중함이 심해 正卿을 증직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혹시 이조판서의 직책을 아끼는 것인가? [此吏判受恩於寒泉家，尊尙甚，至正卿之贈，或靳吏判職名耶.]”(〈530〉, 1799. 10. 14. 아침)라고 했고, “이조 참관(李書九)은 호락논쟁과 관계가 없어서 어제 즉시 거행한다고 말했는가? [亞銓於湖洛無係關，所以昨卽舉行云耶.]”(〈532〉, 1799. 10. 16. 아침)라고 했다.

39) “호락의 일은 金祖淳이 내 말을 따라 감히 입을 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다. [湖洛事，金祖淳一依吾言，不惟不敢開口.]”(〈543〉, 1799. 12. 4.)

40) 이 발문은 「正祖御製下金邁淳書」로 『臺山集』, 『不易言』, 『湖洛事實』에 실려 있다.

41) “似聞徐稷修者作一長書，播傳僑流間，侵詆塘翁，極其狼藉。渠以俗所謂萬無匠之兒，有何知識而辦此乎。爲兪漢宰·金基胥等物所慙悞，明若觀火。大抵宰與胥也，本非端士，賣父兄之勢，儒言而墨行，嘗所切憎之者，今又若此，尤豈不憤甚。又若金邁淳口尙乳臭者，敢侮昔賢，登諸筆端，萬一一任其容易，則其可曰朝廷有長老乎。於卿皆有連臂送言之岐，寧或不卽救正於頭勢益蔓之前耶。念之念之也。挽解之際，必以卿意爲說，切勿露出似此辭色，如何如何。”

글에 이처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왕의 말이라고 하기에
 는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같은 날 다시 보낸 편지에서 “근래 날뛰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웃다가 중간에는 남몰래 탄식했으며, 이어
 서 팔뚝을 걷어 부치고 눈알을 부라렸다. 이른바 김매순이란 입에서
 젓비린내 나고 미쳐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과 김이영(金履永)처럼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하지 못하는 놈이 편지와 발문으로 감히
 선배들의 의론에 주둥아리를 놀린다. 정말 망령된 일이라.”⁴²⁾며 화를
 냈다. 이렇게까지 분노를 터트리고 험한 말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
 이다.

낙론계 선비들의 태도에 대한 정조의 분노는 이 시기 시파(時派)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⁴³⁾ 김조순을 입도 뺏기지 못하게
 막았으나 24세의 젊은 김매순이 당돌하게 발문으로 거부하자 크게 분개하
 였다. 정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밤새 장편의 편지를 써서 김매순에게
 보내 낙론을 주장한 선조 김창흡(金昌翕)의 학술에 비판의 화살을 들렸
 다.⁴⁴⁾ 대신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림직(翰林職)에 오른 24세의 신하에게
 감정적 논조의 장편 편지로 국왕의 철학적 견해를 밝힌 것은 엉뚱함을
 넘어서 황당한 행위이다. 정조 스스로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상식과 정상을 벗어난 과잉반응이었다. 김매순에게 분노의
 편지를 쓴 다음 날 아침 심환지에게 다음 어찰을 보냈다.

간밤에 잘 있었는가? 나는 요사이 놈들이 한 짓에 화가 나서 밤새 이 편지를
 쓰느라 거의 5경이 지났다. 나의 성품도 별나다고 하겠으니 우스운 일이다. 보고
 난 뒤에는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⁴⁵⁾

42) “然而近日跳踉之象，始焉駭笑，中焉竊歎，繼之以振腕裂眦。所謂金邁淳之乳口腥臭，未
 有人形者，金履永之浮雜撓攘，不識東西者，以書以跋，敢欲容喙於前輩議論者，固安
 矣。”(〈541〉, 1799. 11. 23. 아침)

43) 최성환(2009), 앞의 논문, 286-323쪽.

44) 李頤根, 『雲窓瑣錄』 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正廟己未湖西儒生疏請南塘贈
 謚，以理氣之說爲一編大旨。疏中有辨諸家愈久之失七字，蓋指洛學也。金邁淳作湖儒疏
 跋，爲之爭詰。正廟親製大文，嚴斥三淵學術。” 정조가 김창흡의 학술을 비판했다고 한
 문장은 바로 김매순에게 보낸 편지 「正祖御製下金邁淳書」로 『不易言』에 실려 있는데
 『홍재전서』나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45) “夜間何候，此中憤憤於近來漢所爲，夜搆此草，幾至五更後。吾之性度，亦可謂別異，還可
 呵也。覽後，須勿煩人，如何如何?”(〈542〉, 1799. 11. 24. 아침)

정조는 본디 호락논쟁에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었다. 정치적 학문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왕으로서 한 마디 언급은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올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정조실록』을 비롯하여 『홍재전서』와 같은 공식기록에서는 그 원칙과 태도를 충실하게 지키는 국왕으로서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밀찰에서는 중립은커녕 호론을 편들고 낙론을 깎아내렸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원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였다.

정조 자신도 흥분이 지나치고 무리수리는 판단을 하긴 하였다. 하지만 몇 통의 밀찰은 정조의 과잉사유와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였다. 인용문 끝에서 더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도록 좌의정에게 단속을 지시한 다음 절대로 국왕이 한 말임을 숨기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국왕의 언급이 공개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은 국왕 본인은 물론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분노를 드러내고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밀찰의 성격상 용인할 수 있다. 정조에게 밀찰은 자연인으로서 대신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의 하나였다. 정작 문제는 학과의 논쟁에 직접 개입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막고 있어 국왕이 권력을 남용하는 혐의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조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심환지에게 “만류할 때에는 반드시 경의 뜻이라고 말하고, 절대 이런 말투와 표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정조 자신도 밀찰 자체에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권력의 행사와 개입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다. 법적으로 관료에게 위임한 정치행위를 국왕이 일일이 간섭하고 사사건건 개입함으로써 왕권이 강화되는 대신 신권은 약화되었다. 앞서 김매순이 언급한 것처럼 정조가 독단적 제왕으로 행세하여 중도를 벗어난 점과 신하를 촛불처럼 빠트림이 없이 세밀하게 비춰보는 사찰의 정치를 운영했다는 점을 밀찰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46) 정조는 『日得錄』 「문학」5(『弘齋全書』 165권)에서 호락논쟁이 크게 대두한 사실을 거론하고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으니 名理를 쉽게 말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편들고 깎아내리는 사이에 논쟁의 단서를 조장할까봐 정말 두려워서였다.[而予則未嘗說及於此，非但名理未易說，誠恐扶抑之間，長其爭端.]”라고 하였다. 이는 李始源이 1794년에 기록한 내용이므로 이때 전까지 유지한 태도였다.

IV. 맺음말

위에서 정조가 고위직 신하들과 주고받은 비밀편지의 기밀유지와 그에 따른 정치운영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심환지와 주고받은 비밀편지 묶음 『정조어찰첩』이 2009년 소개된 이래로 학계에서는 정조어찰의 성격과 기능을 다방면에서 조명하였다. 이 논문은 그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자료를 다수 활용하여 정조의 비밀편지가 기밀을 유지하는 방법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정조의 정치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조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치세 말년에 국한하지 않고 치세 전반에 걸쳐 밀찰을 폭넓게 활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신료와 정국의 세밀한 정보까지 장악한 정조의 국정운영에 비밀편지라는 비제도적 장치가 채택되었고, 여기에는 기밀유지가 선결하는 조건이었음을 밝혔다.

이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국정의 중심축으로 활동했던 박종악과 심환지라는 두 정승과 주고받은 밀찰을 통해 정조의 정치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대상은 1792년 도당록 사건과 관련하여 박종악이 정조에게 보낸 밀찰과 1799년 한원진의 이조판서 추증과 관련하여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이다. 두 종의 밀찰을 그 주변 자료와 함께 분석한 결과 정조 자신이 정상적인 정치운영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밀찰은 노련하게 책략을 구사한 군신 간의 소통방법이지만 비정상적 국정운영과 과도한 비밀주의에 의존한 정치행태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장치였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사례로 정조가 밀찰을 활용한 정치운영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가설을 다른 사례로 확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정조의 밀찰과 정치운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여유당전서』.

2. 단행본

경기도박물관,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 경기도박물관, 2007.

국립고궁박물관, 『정조어찰』. 국립고궁박물관, 2011.

국립중앙박물관, 『정조 임금 편지』. 국립중앙박물관, 2009.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박종악 저, 신익철 외 역, 『수기: 정조의 물음에 답하는 박종악의 서신』.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박철상 외, 『정조의 비밀 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 푸른역사, 2011.

백승호 외, 『정조어찰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국왕의 고뇌와 통치의 기술』. 문학동네, 2010.

이경우, 『조선, 철학의 왕국: 호락논쟁 이야기』. 푸른역사, 2018.

조성을, 『年譜로 본 茶山 丁若鏞』. 지식산업사, 2016.

조엘 모키르 저, 김민주·이엽 역,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지적 기원』. 에코리브르,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3. 논문

김문식, 「정조 말년의 정국 운영과 심환지」. 『대동문화연구』 66, 2009, 79-116쪽.

박철상,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 66, 2009, 11-30쪽.

백승호, 「새로 발굴한 정조어찰첩의 내용 개관」. 『대동문화연구』 66, 2009, 31-78쪽.
_____, 「樊巖 蔡濟恭의 詩社 활동과 그 정치적 활용」. 『한문학보』 26, 2012, 101-127쪽.

안대회, 「어찰의 정치학: 정조와 심환지」. 『역사비평』 87, 2009년 여름호, 157-202쪽.
_____, 「어찰첩으로 본 정조의 인간적 면모」. 『대동문화연구』 66, 2009, 145-174쪽.
_____, 「정조가 보낸 어찰의 현황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 어찰」. 『정조어찰』, 국립고궁박물관, 2011, 179-182쪽.

_____, 「다산 정약용의 竹欄詩社 결성과 활동양상: 새로 찾은 竹欄詩社帖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3, 2013, 93-129쪽.

우경섭, 「輿對說話와 효종의 비밀편지」. 『한국학연구』 50, 2018, 219-244쪽.

- 이근호, 「조선후기 어찰의 진통과 『정조어찰첩』」. 『동국사학』 47, 2009, 93-130쪽.
- 장유승, 「『정조어찰첩』의 사료적 성격: 『승정원일기』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6, 2009, 117-143쪽.
- _____, 「1791년 내포: 박종악과 천주교 박해」. 『교회사연구』 44, 2014, 63-104쪽.
-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정조가 고위직 신하들과 주고받은 밀찰의 기밀유지와 정치운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9년 『정조어찰첩』이 공개된 이후 정조어찰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 이후 등장한 새 자료를 활용하여 정조의 비밀편지가 기밀을 유지하며 교환된 과정과 동기, 방법을 설명하였다.

먼저 정조가 비밀편지로 정국을 운영하는 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치세 말년에 국한하지 않고 치세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었음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신료와 정국의 세밀한 정보까지 장악한 정조의 국정운영에 비밀편지라는 비제도적 장치가 채택되었고, 여기에는 기밀유지가 선결하는 조건이었음을 밝혔다.

이어서 비밀편지가 구체적으로 활용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시기에 정승이 되어 국정에 참여한 박종악과 심환지가 정조와 주고받은 밀찰을 통해 정조의 정치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1792년 도당록 사건과 관련하여 박종악이 정조에게 보낸 밀찰과 1799년 한원진의 이조판서 추증과 관련하여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을 관련한 사료와 함께 분석한 결과 정조 자신이 정상적인 정치운영을 훼손한 측면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분석을 통해 비밀편지는 국왕이 대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한 긍정적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기밀유지가 선결되어야 할 만큼 음험한 정치운영의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투고일 2018. 12. 07.

심사일 2019. 01. 15.

게재 확정일 2019. 02. 21.

주제어(keyword) 정조(King Jeongjo), 비밀편지(secret letter), 박종악(Park Jong-ak), 심환지(Shim Hwan-ji), 정약용(Jeong Yak-yong), 한원진(Han Won-jin), 정치운영(political management)

Abstracts

Confidential Letters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the Secretive Political Management **Ahn, Dae-hoe**

This paper analyzed the confidentiality of the secret letters which were exchanged between King Jeongjo and his high-ranking subjects and the king's political management during the era. This study continued the research on the letters by King Jeongjo, and used new data which were found afterward to explain the process, motive and method of the confidenti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This paper newly suggested that King Jeongjo had not only used confidential letters in political management at the end of his reign, as has been commonly known but used it liberally during his entire reign. This paper found that confidential letters, which were far from being institutional, were used as a means for King Jeongjo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and get hold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minute detail, and further found that confidentiality was a prerequisite for this medium.

This paper then analyzed exactly how the confidential letters were used. Letters King Jeongjo exchanged respectively with Park Jong-ak and Shim Hwan-ji, who held ministerial posts during different times, were used to examine the king's methods for political management. An analysis on the confidential letter showed that King Jeongjo himself overruled the norms in political management.

